

# 김광현, 2013년 류현진 2014년 윤석민보다 출발 좋다

### 시범경기서 선발 등판 2이닝 무피안타 3탈삼진 무실점 호투 과거 오승환 시범경기·정규시즌 모두 뛰어난 성적 올리기도

‘KK’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출발이 좋다. 현재까지의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선발로 성장한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루키시즌 시범경기보다 뛰어나다.

김광현은 27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주퍼터 로저 딘 스타디움에서 열린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2020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2이닝 무피안타 무볼넷 3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 23일 뉴욕 메츠전에서 1이닝 무피안타 1볼넷 2탈삼진을 기록한 데 이어 2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다.

아직 2경기에서 3이닝을 던진 것에 불과하지만 선발 경쟁에서도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김광현의 초반 행보는 역대 코리안 메이저리거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심지어 지난해 메이저리그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류현진보다도 출발에서는 앞선다.

류현진은 루키 시즌이었던 2013년 2월25일 시카고 화이트삭스를 상대로 시범경기에 처음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첫 선발이자 두번째 시범경기 등판이었던 LA 에인절스 전에서는 2이닝 4피안타(1피홈런) 1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흔들렸다.

2014년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윤석민도 김광현과 같은 출발을 보여주지 못했다. 윤석민은 2014년 시범경기에서 총 2경기에서 3이닝을 던지며 1승을 챙겼다. 하지만

홈런을 맞고 실점했고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했다.

김광현의 출발이 좋은 것은 맞지만 정규시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다. 시범경기와 정규시즌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류현진은 2013년 시범경기에서 7경기(6경기 선발)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 3.29의 성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정규시즌에서는 30경기에서 19이닝을 던지며 14승8패 평균자책점 3.00으로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016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데뷔한 마무리 투수 오승환은 시범경기와 정규시즌에서 모두 뛰어난 성적을 올리기도 했다. 오승환은 시범경기 9경기에 나



서 평균자책점 1.86으로 빅리그에  
순조롭게 안착했다. 이어 정규시즌  
에서는 중반부터 팀의 마무리투수  
로 자리잡으며 6승3패 19세이브 14  
홀드 평균자책점 1.92를 기록하며  
팀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다.

## 류현진, 오늘 미네소타전 선발 등판...토론토 이적 후 첫 실전

### 시범경기서 1~2이닝 소화 예정...도날드슨·크루스·로스리오 등 강타자 즐비



류현진(33)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적 후 첫 실전 등판에 나선다.

류현진은 28일 오전 3시(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더니든 TD 볼파크에서 열리는 2020 메이저리그 시범경기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2013년 빅리그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던 류현진은 올 시즌을 앞두고 큰 변화가 생겼다.

FA 자격을 얻은 류현진은 토론토와 4년 8000만달러에 계약을 맺

었다. 익숙했던 내셔널리그 무대를 벗어나 지명타자 제도가 있는 아메리칸리그에 오게 됐다.

류현진은 일단 이날 경기에 선발로 나와 2이닝 정도 소화할 예정이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현지 인터뷰를 통해 “류현진은 현재 투구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다”며 “어떤 시점이든 목표했던 투구수를 채운다면 교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미국으로 떠났던 류현

진은 일찌감치 플로리다 캠프에 합류, 몸을 만들었다.

몇 차례 불펜 피칭을 통해 담금질에 나섰고 류현진과 호흡을 맞추는 포수 대니 잰슨은 “공들이 모두 양 코너로 온다”며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한편 27일 토론토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시범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류현진의 등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류현진은 예정대로 28일 마운드에 오른다.

류현진이 상대적으로 될 미네소타는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중부 지구에서 101승61패를 거두며 1위에 오른 강팀이다.

지난해 37홈런을 때려냈던 조시 도날드슨을 비롯해 벨스 크루스, 에디 로사리오, 미구엘 사노 등 강타자들이 즐비하다. 미네소타는 시범경기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다.

올 시즌 토론토에서 1선발을 맡게 될 류현진이 새로운 팀에서 어떠한 피칭을 선보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 코로나19, 도쿄올림픽까지 집어삼킬까

### IOC 위원 “위험하면 연기 말고 취소해야” 과거 하계올림픽 3차례 취소, 모두 전쟁 때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개막을 5개월 앞둔 2020 도쿄하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미칠 기세다.

IOC 위원들은 지난 26일(이하 한국시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도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대회 연기, 장소 변경이 아닌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며 “대회 2개월 전인 5월말까지는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의 ‘취소’가 관련 인물로부터 공개석상에서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현직 IOC 위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세계 스포츠계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캐나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파운드 위원은 1978년 처음 IOC 위원이 돼 집행위원, 부위원장 등을 거친 현역 최장수 위원이다.

개최국 일본은 펄쩍 뛴 것도 당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파운드 위원의 발언은 IOC의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며 “IOC는 예정대로 대회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공장 진화에 나섰다.

취소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인지 몰라도 코로나19로 인

해 올림픽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성화봉송 과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올림픽 성화는 다음달 12일 고대 올림픽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올림피아 헤라신전에서 채워진다. 이후 그리스 내에서 봉송된다. 19일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에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전달된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인계된 성화는 20일 일본 미야지현 마쓰시마 공군 기지에 도착한 뒤 26일부터 올림픽 개막일인 7월24일까지 일본 전역을 돌며 올림픽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성화 채화까지 2주 정도가 남은 시점, 그리스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인접국인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피로스 카프랄로스 그리스 올림픽위원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보건 당국과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성화가 일본으로 건너간 뒤다. 확진자가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성화 봉송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P 통신은 ‘성화 봉송에 차질이 생긴다면 도쿄올림픽에는 심각한 조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이번달 예정돼 있던 자원

봉사자 교육도 5월 이후로 연기됐다. 현직 IOC 위원들의 입에서 ‘취소’라는 말까지 나왔다. 입밖에서 올림픽 개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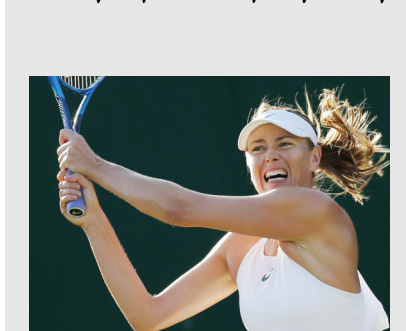
역대 하계올림픽이 취소된 사례는 3차례 있었다. 모두 전쟁에 의한 취소였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예정이던 1916년 대회가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취소된 것이 최초 사례다.

1940년 대회는 우여곡절 끝에 취소됐다. 개최권을 갖고 있던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켜 개최지가 핀란드 헬싱키로 변경됐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결국 열리지 못했다. 1944년 영국 런던 올림픽 역시 2차 대전 영향으로 취소돼 종전 후인 1948년이 돼서야 개최됐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경우 질병에 의한 역대 최초 취소 사례로 남게 된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는 신종플루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당시에는 Zika 바이러스가 유행했지만 대회는 그대로 열렸다.

스노보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6개 대륙 중 마지막 청정지역이던 남미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쿄올림픽의 개최 여부 또한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

## ‘테니스 여제’ 샤라포바, 은퇴



실력과 미모를 갖춘 테니스 선수로 유명했던 마리아 샤라포바(러시아)가 32세 나이로 현역에서 물러난다.

영국 언론 BBC는 샤라포바가 보그 앤 배너티 페어라는 잡지를 통해 “코트에 작별을 고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고 2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샤라포바는 “어제 부상 이후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며 그간 부상으로 지친 상태였음을 고백했다.

선수로서의 개인적인 감사과

고통스러웠던 어제 부상 기간을 돌아본 샤라포바는 “지난 28년간 5개의 그랜드슬램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제 다른 산에 올라 경쟁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며 새로운 도전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지난 2004년 아테네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테니스계에 깜짝 스타로 떠오른 샤라포바는 아름다운 외모와 특유의 괴성 등으로 전 세계적인 스타덤에 올랐다.

2006년 US 오픈, 2008년 호주 오픈에 이어 2012년 프랑스 오픈 우승, 2014년 프랑스 오픈까지 총 5차례나 그랜드슬램 대회 정상에 올랐다.

하지만 2016년 금지약물인 멜도닐을 복용한 사실이 밝혀져 커리어에 오점이 남았다. 15개월간 출전 금지 징계를 받는 복귀 후에는 이전 기량을 회복하지 못한 채 하위권을 전전했다.

## 서울 ACL 홈경기

### ‘코로나19’로 연기 태국 치앙라이 한국행 난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 개최에 차질이 생겼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3월 3일로 예정된 AFC 챔피언스리그 E조 예선 FC 서울과 치앙라이 유나이티드(태국)전이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양팀의 경기는 3월 3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무관중으로 열릴 계획이었으나 국내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며 태국 측이 서울 원정에 난색을 표명, 전격 연기가 결정됐다.

AFC는 이날 서울 측에 경기 연기를 통보했으며 일정은 추후 정해질 전망이다.

3월 4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AFC 챔피언스리그 울산 현대와 퍼스 글로리(호주)간 F조 예선 경기 역시 연기가 유력하다.

## “코로나19 무서워 떠나겠다”

### KT 더햄 프로농구 초우 중도 계약하지 요청

부산 KT의 외국인 선수 앨런 더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에 스스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프로농구 사상 초유의 일이다.

KT 구단은 26일 더햄의 계약 해지 요청 사실을 밝히며 “완전한 선수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외국인 선수 바이런 멀런스 역시 불안감을 드러냈으나

시즌 끝까지 팀에 남기로 했다.

이로써 KT는 당분간 전력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장 27일 서울 SK와 원정 경기를 외국인 선수 한 명만으로 치러야 한다.

KT 관계자는 “대체 선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갖고 있는 선수 리스트에서 최대한 빨리 영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햄은 지난 달 21일 알 쏘튼의 대체 선수로 KT 유니폼을 입고 좋은 활약을 펼쳤다. 신장 195cm의 언더사이즈 빅맨으로서 8경기에서 평균 23분을 소화하며 11.3득점 8.6리바운드 3.1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